



제 3차 이사회 개최

정관·제규정(안) 검토, 직제개편 단행



본회는 지난 12월 23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08년도 제 3차 이사회를 열고 협회 정관 및 제규정(안)을 검토했다.

정관은 현행 종계·부화, 채란, 육계, 계열화사업 회원 외에 토종닭 분과위원회 신설을 재확인하였으며, 회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오는 2월에 열리는 정기총회를 거쳐 최종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제규정(안)은 팀제에서 부제(정책기획부, 경영지원부, 홍보부, 검정연구소)로 구분해 담당업무에 적합한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협회 경영의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도지회·지부 규정(안)은 현행 전북·광주전남·대구경북·부산경남·충북·제주 등 총 6개 도지회로 구분됐지만, 관할지역내 일정 회원수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도단위(광역시 포함)로 도지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원비를 인하해 회원 배가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하였다.

축산관련 4대 신문사 좌담회 개최

양계산업 발전 방향 모색



이준동 회장은 지난 1월 9일 본회 회의실에서 양계산업의 어려움이 가속화되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축산관련 4대 신문사 대표를 모셔 좌담회를 개최했다. 공통된 의견으로 협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양계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 문제점이 무엇인지 협회 측에서 고민해 보다 빠른 추진력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본문 84페이지 참조).

기자회견

토종닭협회 사단법인 정부 승인관련 협회 입장 강력 대응키로

1월 16일자로 한국토종닭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승인한 정부의 행위와 관련해 대한양계협회의 입장표명을 위해 본회 회의실에서 1월 19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계산업이 하나로 뭉쳐 생산자와 정부가 집약하여 개방화시대에 직면하면서 대응해야할 현 시점에



서 5%에도 미치지 않는 토종산업을 사단법인화함에 따라 법인 취소 또는 정부에 대한 양계산업의 방향제시 및 명확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타 축종과 비교하여 작은 규모에 속하는 육계산업 사단법인체를 3개나 분리시켜 승인했다는 점은 산업을 분리시킬 뿐 아니라, 생산자의 목소리를 집약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입장이다. 그간 본회에서는 토종닭 사단법인화 반대 입장을 전했고, 무대책 승인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이 없을 경우는 강경한 입장 표명 및 대정부 투쟁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란계자조금 공동준비위원회 대의원 선거 2월 16일부터



산란계자조금 공동준비위원회(위원장 이준동)는 12월 24일 본회 회의실에서 자리를 갖고 대의원수

를 80명으로 확정하는 등 선거구별 대의원수 배분 및 선거일을 논의했다. 선거구별 대의원수는 농가 및 사육수수에 따라 배분키로 하고 선관위원을 구성하고, 1월 12일 선거공고를 실시키로 했다. 공고 이후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후보자 등록기간을 거쳐 2월 16일 대의원 투표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산란계 농가들의 관심이 높을 시기 전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을 밝혔다.

종계·종란 수입조절위원회 09년도 종계의 시장접근물량 배정기준 검토



종계·종란수입조절위원회(위원장 오봉국)가 지난 12월 30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2009년 업체별 양허관세 추천신청 접수 결과 737,870수로 전년 추천실적 대비 31.6%가 증가했다. 2009년도 종계 적정수수 검토와 종계의 시장접근물량 증량여부 및 증량수수 추천물량 배정방법에 대한 집행부의 제시안을 검토한 결과 10만수 내에서 증량을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461천수(기본물량)에 대한 1차 배정을 우선 진행키로 하고 정부에서 100천수에 대한 증량요청이 승인될 경우 차후 배정키로 하였다.

검정위원회

82회 육용계, 41회 산란계 경제능력 검정 최종 성적 검토



검정위원회(위원장 오봉국)가 지난 16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제 82회(2008. 10. 16 ~ 12. 24, 10주간) 육용계 경제능력 검정 총괄 성적과 제 41회(2007. 4. 12 ~ 2008. 8. 28, 72주간) 산란계 경제능력 검정 최종 성적 검토에 대해 심의 및 평가를 가졌다.

채란분과위원회

산란계자조금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천강균)가 지난 5일 본회 회의실에서 1월 월례회의를 갖고 자조금 추진현황보고와 채란업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당일부터 시·군별 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2월 중순까

지 산란계 대의원선거선관위원 구성, 후보자 등록 등을 거쳐 16일 대의원투표에 들어갈 예정으로 지역별 농가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최근 산란종계 입식수수가 전년 동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상반기가 지나면 계란의 초과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이 예상돼 금년 채란업 전망에 대해 다소 어둡게 내다봤다. 이날은 소비자시민모임 강광파 상임이사를 초청해 소비자가 원하는 계란에 대한 초청강연 진행으로 자조금 시행에 대한 필요성을 당부하기도 했다.

종계분과위원회

종계부화장 위생방역 강화에 만전 기할 것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성갑)가 지난 14일 본회 회의실에서 2009년 첫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 업계 단합 및 분과위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를 연간 10회 개최하고, 종계부화장 위생방역사업의 일환으로 불법 종란·병아리 유통 근절을 위한 법개정 건의와 가금 티푸스 청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또한 종계·부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발전기금을 모금함에 있어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육계분과위원회 지역브랜드 활성화 방안 논의



지난 21일 본회 회의실에서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흥재)가 개최되었다. 개방화 시대에 따라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브랜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웰빙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로컬푸드운동의 확산으로 지자체 지역브랜드 선호의식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수입닭고기와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이다. 일반 닭고기와 차별화를 위해 기능성 닭고기·항생제 대체 물질 사용·적정 사육밀도 유지하여 위생의 안전성 확보 등 영농조합법인을 기본단위로 브랜드 난립과 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평가제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승진인사 발령 황일수 신임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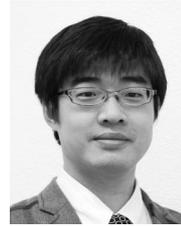
본회는 황일수 자조금사업팀 부장을 상무로 승진 발령(1월 1일자)하는 한편 각 부서 개편에 따른 조직 인사를 2월 1일자로 단행하였다. 황일수



▲ 황일수 상무

신임 상무는 1991년 11월에 총무부 지도조사과로 입사해 최근까지 자조금사업팀 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육계, 산란계 업무를 비롯한 자조금사업 업무를 담당해 왔다.

또한, 경영지원부 이종웅 과장대리를 과장으로, 정책기획부 공혜경 과장대리를 과장



▲ 이종웅 과장



▲ 공혜경 과장

으로 각각 승진인사 발령했다. 이종웅 과장은 지난 종계검정 및 농가지도업무를 담당해왔으며, 공혜경 과장은 자조금사업팀에서 자조금 및 육계업무를 담당했고, 경영지도팀에서 협회 총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다.

내부 조직 개편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협회 경영의 합리화 추진을 위해 협회 내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협회 내부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기존 팀제(경영지원팀, 자조금사업팀, 홍보팀)를 부제(정책기획부, 경영지원부, 홍보부)로 구분해 담당 업무에 적합한 명칭 부여로 협회 내부 업무 효율화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기획부에는 황일수 상무가 부장 겸직을 통해 산업정책 및 질병 업무를 책임지고, 경영지원부에는 전, 닭경제능력검정소장을 맡았던 유수동 부장, 홍보부에는 김동진 부장이 각각 업무를 맡게 되었다. 한편, 안성 소재 검정연구소에는 전, 경영지원팀 조종수 부장이 검정소장으로, 월간양계 광고를

담당하던 전현수 부장과 함께 배치되었다.

♣ 인사이동 ♣

* 정책기획부(황일수 상무)

공해경 과장(총무 및 회원 담당)

이경현 사원(질병 및 정책업무 담당)

* 경영지원부(유수동 부장)

김재홍 과장(육계 및 종계DB 담당)

이종웅 과장(종계 담당)

기영훈 사원(산란계 및 자조금 담당)

이남희 사원(양계산물시세조사·속보, 토종닭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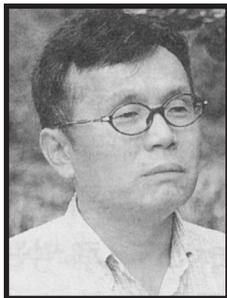
* 홍보부(김동진 부장)

장성영 기자(월간양계 편집 및 광고 담당)

박수영 기자(월간양계 편집 및 박람회 담당)

전 본지 편집위원 **故이건표** 사장 별세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약한 바 있는 **故이건표**(전 유일농원 대표) 사장이 지난해 12월 27일 향년 54세의 나이에 질병으로 별세하였다. **故이건표** 사장은 본회 회원으로 산란계 농장인 유일농원을 경영한 바 있으며,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여년 동안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약하면서 '이건표 칼럼' 등을 집필하는 등 양계업계 발전에 기여하였다.



지회 · 지부 소식

< 지부장 선출 >

김포채란지부

김포채란지부는 지난해 12월 12일 정기총회를 통해 김응실 신임 지부장을 선출했다.

- 지부장 : 김응실
- 부지부장 : 장순배
- 감사 : 김성대, 고평진
- 총무 : 이태종



▲ 김응실 지부장

당진육계지부

당진육계지부는 지난 1월 8일 정기총회를 통해 이종승 신임 지부장을 선출했다.

- 지부장 : 이종승
- 부지부장 : 한용현, 이민호
- 감사 : 호종삼, 김관호
- 총무 : 손현동



▲ 이종승 지부장

영주채란지부

영주채란지부는 지난해 11월 1일 송원욱 신임 지부장을 선출했다.

- 지부장 : 송원욱
- 감사 : 김재곤, 황장규
- 총무 : 임철환



▲ 송원욱 지부장

이천채란지부

이천채란지부는 지난 5일 정기총회를 통해 오치성 신임 지부장을 선출했다.

- 지부장 : 오치성
- 고문 : 정광면, 전병훈
- 부지부장 : 김두경, 이덕선
- 감사 : 이천석, 엄주철
- 총무 : 정승헌



▲ 오치성 지부장

(가칭)대한양계협회 충남도지회 설립 발기인대회 개최



(가칭)대한양계협회 충남도지회 설립 발기인대회가 지난 16일 충남 홍성소재 축산회관에서 도내 산란계·육계·종계지부장 및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발기인 대회에 참석한 발기인들은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도지회를 설립키로 동의하고 충남 홍성군 축산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본회로부터 승인이 이루어지는 대로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발기인들은 지회장에 박태원 충남육계도지부연합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으며, 채란분과위원장에 임헌완 충남계우회연합회장을, 육계분과위원장에 이일용 아산육계지부장을, 종계분과위원장에

안태엽 논산종계지부장을 각각 선출하고 도지회 설립요구서를 본회에 제출하였다.

포천채란지부

제3회 송년의 밤 행사



포천채란지부(지부장 김인배)는 지난 12월 22일 하모니웨딩홀부페에서 제3회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양계농협 오정길 조합장, 경기도 채란지부연합회 오세을 회장이 함께 자리를 가져 행사를 빛내주었다. 이날은 포천시농업기술센터 박병교 축산과장을 비롯해 포천축협 임용혁 경제상무 등 감사패 전달식이 같이 진행 되었다.

평택채란지부

사무실 이전

평택채란지부(지부장 조성우)는 회원간의 원활한 의사 교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무실을 이전했다.

주소 :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508번지
전화 : 031-656-0173
팩스 : 031-656-0173